

# 완도군, 부속도서 주민위한 '여객선 천원 요금제' 시행

### 내년 1월 1일부터 장도 등 25개도 주민 이용 가능 "유일한 해상교통 여객선 이용 여건 개선 기대해"

완도군은 부속 도서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2021년 1월 1일부터 '완도군 부속도서 주민 천원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원 요금제는 읍·면 소재지가 있는 도서를 제외한 8개 읍면, 25개 부속도서 주민이 여객선 이용 시 운항 거리에 관계없이 모든 여객선을 단돈 천 원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요금제이다. 천원 요금제 시행 대상인 부속도서는 ▲금일읍의 장도, 황제도, 충도, 신도, 원도, ▲노화읍의 녘도, 서넙도, 마안도, 후장구도, 죽굴도, 어룡도, ▲군외면의 흑일도, 백일도, 동화도, 서화도, ▲신지면의 모항도, ▲청산면의

여서도, 대모도, 소모도, 장도, ▲소안면의 황간도, 당사도, ▲금당면의 비견도, 허우도, ▲생일면의 덕우도 등이 해당된다. 다만 거리가 가까워 여객선 요금이 천원 미만이었다던 곳은 요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천 원 이상인 곳은 천 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서 주민들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을 통해 운임료의 50%를 지원받고 있지만 부속 도서는 육지와 거리가 멀어 시간 및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겪고 있으나, 천원 요금

제를 통해 도서 지역의 해상교통 이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군은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 조례 신설, 천원 요금제 관리 시스템 전산 개발, 본예산 확보 등 천원 요금제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서민의 유일한 해상 교통인 여객선 이용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 진도군, 쌈배추 등 겨울채소 소비촉진 판매 행사 개최

### 공무원·지역 기관단체 대상...현재까지 300여 박스 판매



진도군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쌈배추와 봄동 농가를 위한 판매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30일 진도군에 따르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진도군 공무원과 지

인복지시설과 급식기관에 진도 봄동과 쌈배추 120 박스를 전달,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겨울철 해풍을 맞고 노지에서 자란 진도 봄동은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으며, 칼슘과 칼륨, 철분, 엽산 등 무기질 성분이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는 채소이다. 진도 쌈배추는 일반 배추보다 베타카로틴 함량과 당도가 높고 아삭아삭한 식감과 맛이 탁월하며, 피부 노화 방지와 항산화 작용에 효능이 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진도 봄동과 쌈배추의 우수성을 알리고,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감소가 겹치면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판매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 강진군 "겨울철 딸기 관리 이렇게 하세요"

### 온도관리 철저히 하고 적절한 과일수 지켜야 품질향상

강진군이 고품질 딸기의 다수확을 위해 동절기 환경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딸기는 저온성 작물로 분류되지만 주간 8~22℃ 내외의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겨울철 낮은 온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생육이 정지하는 휴면에 들어가 수확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최저 6도 이상을 유지해야 생육에 지장이 없게 된다.

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딸기 하우스 보온을 유지하기 위해 해가 떨어지기 전 온도를 너무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평소보다 다결보온커튼이나 축창을 일찍 닫는 것이 온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 특히, 한파를 대비해 온풍기, 열풍기 등 가온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펌프나 관수시설이 동파되지 않도록 관로의 물을 제거해야 한다. 눈이 올 경우 적설 피해에 대비해

온풍기로 지붕에 쌓인 눈을 녹여 하우스 내부로 들어오는 광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겨울철은 낮은 온도와 부족한 광량으로 광합성률이 떨어지므로 적절한 적과를 반드시 실시해 세력을 유지해야 고품질 딸기를 다수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춘기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습적인 한파·폭설에 대비해 시설하우스의 점검 관리를 통해 예상치 못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겨울철 딸기 재배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도암분점 개소식 개최

### 도암·신전지역 농업인 원거리 농기계임대 불편해소



강진군은 지난 29일 도암면 향촌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지역 농업인들이 함께한 가운데 농기계 임대사업소 도암분점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점 설치에 이승욱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권역별 설치를 통해 농기계 임대시간 단축과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도암분점은 국·도비 포함 총 사업비 12.2억 원을 투입해 부지 2,575㎡에 건축면적 543㎡로 조성됐다. 주요시설로는 보관창고 2동, 정비실, 사무실, 용 선별장과 임대농기계 39종 83대, 관리장비 5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원거리 이동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임대농기계 출고 전 작동요령과 안전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안전사고 없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겠다"며, 앞으로 도 지역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농기계를 추가 확보해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모든 군민에게 10만원씩 지급

### 내년 1월 초, 지역경제 순환 위해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해남군이 전 군민에게 한명당 10만원씩 지원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지급일은 내년 1월 초순으로, 코

로나19의 전국적 확산세를 감안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남군의회와 사전 협의를 완료, 추경을 통한 예산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소요금액은 전액 군비이며, 특히 지역내 자금의 순순환을 위해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

이다. 재난기본소득 대상자는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기준일은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2020년 11월 30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총 3만 5,241세대, 6만 8,966명으로 지급액은 총 69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기동취재본부

# 책과 함께 즐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